캄보디아 뽀디봉 마을에서 온 편지 ⑤

시대 관통하는 용 머리와 꼬리의 세계



수레꾼 뽀디봉 중학교 교실에서 진행된 스마트폰 교육 시간, 학생들이 기기 작동법을 익히고 있다. 비록 서툰 교육이지만, 디지털 세계의 문 앞에 서는 작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한 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꼬리는 1850년쯤에 있고 머리는 2050년대와 맞닿아 있는 거대한 용이 있다고 말입니다. 이 거대한 용의 꼬리는 이제 막 산업혁명이 시작되던 시대 이전의 흙먼지 속에 잠겨 있고, 머리는 인간의 생각을 따라잡으려 안간힘을 쓰는 21세기 첨단 AI 시대의 어느 지점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용 머리 가까이에 살고 있고, 어떤 이들은 꼬리 쪽에서 아등바등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각자 그 거대한 용의 몸통 어딘가에서 살고 있습니다.

요즘 지구를 강타하고 있는 뉴스들을 보면 마음이 몹시 무겁습니다. 타협점을 전혀 모르는 종교라는 이름 아래, 세계의 에너지원인 석유의 목줄을 잡고 각종 첨단 무기들을 총동원해 수많은 인명을 해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175명에 달하는 이란의 어린 여학생들이 한순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도 전해집니다. 이런 소식을 접할 때마다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습니다.

한국의 재가불자들이 18년 동안 인연을 맺어 온 캄보디아 국경의 작은 마을인 뽀디봉 상공에도 태국과 캄보디아의 전쟁으로 포탄이 날아다녀 학교의 문을 닫아야 했고 마을도 비워야 했습니다. 휴전이 이루어진 지 넉 달에 가까워지고서야 겨우 70%의 등교율을 보이고 있으나, 교사들이나 마을 사람들이나 모두 긴장감을 놓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불안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이곳의 아이들은 걸어오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부모님의 오토바이에 실려 학교에 옵니다. 우기가 6개월이나 돼 일 년의 절반을 세차게 내리는 열대의 비를 뚫고 와야 하고, 건기에는 흙먼지가 날리는 길을 달려와 먼지투성이가 된 채 교실에 들어옵니다. 안타깝게도 이 아이들 가운데 컴퓨터를 자유롭게 다루는 학생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컴퓨터가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유럽의 아이들이 챗GPT나 제미나이 같은 인공지능을 사용하며 디지털 세계 깊숙한 곳을 탐험하고 있을 때, 동시대의 우리 아이들은 하루하루를 근근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서는 AI를 배우며 첨단 과학의 세계로 빠르게 달려가고 있지만, 뽀디봉과 같은 마을에서는 연필 쥐는 법부터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용의 꼬리에 있다고 해서 영원히 그곳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뽀디봉 마을에도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이들의 손에 스마트폰이 하나둘 쥐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화면을 통해 디지털 세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는 이 아이들 가운데 누군가가 용의 머리로 이어지는 문을 열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선생님들이 사용할 노트북이 필요합니다. 컴퓨터가 없는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디지털 세상을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사들에게 먼저 디지털 세계를 가르칠 수 있도록 노트북부터 마련해 주는 일이 시급해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용의 몸통을 타고 머리 쪽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컴퓨터를 보급해 주는 일도 뒤따라야 합니다.

수레꾼은 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조금씩 용의 머리 쪽을 향해 걸어가 보려 합니다.



오시환
자비를 나르는 수레꾼 대표

동국대 캠퍼스 전법일기 ③ '동국불자' 자긍심 고취를 위해

명상으로 몸과 마음 밝히는 학생들

저는 "아이 하나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을 경찰사법대학 불교동아리 지도법사로 있으며 자주 떠올립니다. 대학생 청년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심에 불을 지피기 위해 수많은 인연과 노력이 하나로 모여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청년 전법의 원력으로 단과대별 불교동아리를 신설하신 이사장 스님, 그 원력에 일심으로 움직이시는 총장님과 건학위원회 구성원들, 전국의 지역 미래불자장학 후원 사찰, 학교 신행생활의 기본 토대인 정각원, 그리고 각 단과대를 맡아 지도하는 법사 스님과 지도 교수님들, 여기에 한 사람이라도 더 법회에 나오도록 진력을 다하고 있는 동아리 운영진 법우들까지. 이러한 대작 불사의 구성을 종립대학 동국대학교 말고 또 어디에서 볼 수 있을지 놀랍고도 감탄스럽습니다.

이사장 스님의 "지계란 각자의 자리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것"이라는 당부의 말씀 아래 이 구성원 속 저의 역할은 뚜렷했습니다. 바로 동국대생들에게 '동국불자'라는 자긍심을 심어 주는 것입니다.

탈종교 시대, 2000년대 이후로 태어난 학생들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처음엔 막막했습니다. 그러나 대학원에서 인연이 되어 함께 소임을 맡은 타 단과대 18분의 지도법사 스님들과 의견을 나누고, 학생들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경찰사법대 교수님들과 함께 불공 올리는 마음으로 공을 들인 결과, 아이들이 처한 실제 상황을 어느 정도 파악하게 됐습니다.

불교는 청년들에 오아시스 같은 존재
고충 多 학생에 불교 자비·지혜 알려
다양한 명상 체험으로 회원 크게 늘어

불교는 청년들에게 오아시스와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대학 입시를 막 끝내고 새로운 세계로 들어서며 느끼는 긴장감, 더 넓어지고 복잡해진 대인 관계 속에서 생기는 갈등, 늘어난 경제적 부담, 학생 신분과 예비 사회인의 경계에서 오는 막막함 등 '삶은 고(苦)'라는 대전제처럼, 빛나는 청춘의 이면에 내재된 고통들이 보였습니다.

특히 경찰사법대학은 강도 높은 체력 훈련과 사법 교육과정, 그리고 수많은 범죄 사례를 접하는 특성에 따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를 체험할 수 있는 불교가 때마침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명상수행 코칭이라는 저의 전공을 살려 지도교수이신 선학과 학과장 정도 스님의 인준 아래 여러 명상 전공 선생님들을 초빙해 법우들에게 양질의 명상 체험을 제공할 수 있었습니다.

학교 법당에서 정기법회를 열어 간단한 경전 말씀을 전하고 싱잉볼 소리명상, 차명상, 아로마명상, 꽃꽂이명상, 걷기명상, 호흡명상 등을 함께 했습니다.

법회에 참석한 법우들이 몸과 마음이 산뜻해져 밝은 얼굴이 됐고, 법회는 힐링이자 지혜와 자비를 쌓는 이로운 시간이라는 인식이 잡히니 그 후로 회원 수가 크게 늘고 활동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론 반전도 있었습니다. 법회 내용이 좋아 학생들이 많이 온 줄 알았더니 간식의 인기도에 따라 참여율이 달라진 것입니다. 스스로를 어른 곰인 줄 아는 아기곰 같은 귀여운 법우들 덕분에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도 법우들은 2500여 년 전 부처님 말씀이 지금도 통한다는 사실을 신기해하고, 본인이 만든 염주를 아픈 할머니께 드리겠다는 예쁜 마음도 냅니다. 이처럼 보시를 통해 감동을 경험하고, 일상에서 불교를 느끼며, 스님들과 가까이서 얘기 나눌 수 있어 좋다는 이들이 있기에 저는 기쁜 마음으로 맛있는 간식을 많이 준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이 캠퍼스 일상에서 불자로 거듭나도록 저 역시 제 자리에서 묵묵히 역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만경 스님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캠퍼스테이 지도법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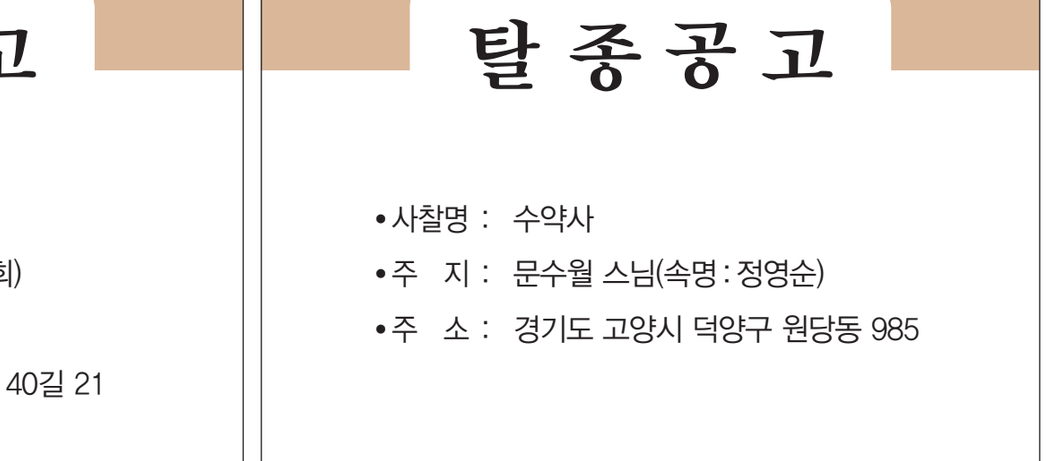
스마트폰에 담은 사찰 꽃문 ⑨ 임진왜란과 꽃문

사찰 문살에는 언제부터 '꽃'이 피었을까. 우선 오래된 건물부터 보자. 현존하는 건물 중 건립 시기가 가장 오래됐다고 알려진 봉정사 극락전은 어간에만 출입문이 있는데, 아예 문살이 없는 '널문(판장문)'이다.

이 건물이 지어진 때는 1200년대 초로 추정한다. 1308년에 지어진, 건립 연대가 밝혀진 것 가운데 가장 오래된 수덕사 대웅전 전면은 모두 문살을 사선으로 교차시켜 짠 '빗살문'이다. 1376년에 지어진 부석사 무량수전 전면의 문은 모두 '우물 정(井)' 자 모양으로 짠 '교살문'이다. 고려 시대 말까지 '꽃살문'은 등장하지 않는다.

꽃살문의 백미, 꽃살문의 클래식을 만나려면 내소사 대웅보전으로 가야 한다. 조선 시대 소목장들이 절정의 솜씨를 발휘한 공예품 같은 꽃살문이다. 사실 '공예품' 같다는 표현도 결례다. 이런 솜씨를 발휘한 목수들의 마음자리에는 '작품'을 만들겠다는 식의 의도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 석굴암과 불국사, 고려청자, 조선백자를 만든 장인들이 그랬다.

내소사 대웅보전이 지어진 때는 1633년이다. 부석사 무량수전이 지어지고 257년이 흐른 다음이다. 이 기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합리적 추론은 가능하다. 문화 현상에서 양식의 변화 양상은 경사로보다는 계단에 가깝다. 우리 역사에서 이런 계단은 '임진왜란'이다. 현존하는 사찰의 꽃문은 임진왜란 후 인력과 재원이 모두 부족한 상황에서 대웅전(주불전)을 중심으로 사찰을 재건한 시대의 산물이다. 다포식 공포, 닫집, 천장 장엄 등이 이 시기에 이뤄졌고, 18세기 들어서는 규범적 양식으로 전국에 퍼져 나갔다.



내소사 대웅보전.

손영자 작가

탈종공고

• 사찰명 : 성보사
• 주 지 : 법련
• 주 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1031-8(태경타워 4층)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불기 2570(2026)년 3월 10일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성동구 옥수동 미타사
• 주 지 : 묘희 스님(속명 : 한묘희)
• 승 번 : 0177-0164
• 주 소 : 서울 성동구 독서당로 40길 21

본인은 개인사정으로 귀 종단을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수약사
• 주 지 : 문수월 스님(속명 : 정영순)
• 주 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원당동 985

위 사찰과 위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18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